

지역 매 아 리

완주군, 환경미화원·운전직 안전·보건교육 진행

완주군이 환경미화원과 읍면 운전직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완주군은 최근 자치단체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 및 읍·면 운전직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환경미화원 48명, 읍·면 운전직 10명 등 총 67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주)안전관리기술원 팀장을 초청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주제로 작업 특성상 안전사고 노출이 많은 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례위주로 실시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미화원 등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유모차소독기 비치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평선 사랑동아들이 세균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라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유모차 소독기를 설치하고 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이면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유모차와 카시트 등이 섬유와 비섬유의 혼합제품으로 세균 번식이 쉽고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여 정기적인 세탁이 필요하지만, 무겁고 부피가 커서 가정에서 세탁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사업 일환이다.

소독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 1층 출입구에 설치하였으며, 강력한 자외선 살균램프와 분무 및 적외선 열풍건조가 전자동으로 진행되어 유모차 한 대당 3분 이내에 살균과 소독이 완료된다.

소독기는 유모차, 카시트와 같은 대형 제품도 소독이 가능한 넉넉한 규격으로 마련됐으며 장난감 등 다양한 유아용품과 같이 병행하여 넣고 시작 버튼 한번만 누르면 손쉽게 소독할 수 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 아동 부모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유모차소독기를 통해 보건소를 찾는 부모와 아이들이 유해세균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김제시 최대 20만원

김제시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경영안정을 돕는 사업을 본격화 한다.

김제시는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비롯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카드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수수료 0.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소상공인당 최대 20만원이며 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중 공고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기존 0.8%에서 0.5%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카드수수료를 최대로 지원할 경우 김제지역 2,000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은 소상공인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거리 용기마을 '용기종기음악회' 성황

국립민속국악원·전주시립국악단 단원들 참여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용기마을(국가등록문화재 403호)와 작업장 앞마당에서 가마 불 지피기와 전통국악이 함께 어우러진 '용기종기음악회'가 열렸다.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안시성 용기마을의 가마불지피기 및 용기이야기를 시작으로 제작된 용기가 잘 구워지기를 소망하는 고사 세례머리에 이어 국립민속국악원과

전주시립국악단 단원들이 참여해 수준높은 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양은주·김수영 명창의 판소리와 민요한마당,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김경주 씨의 교방살풀이와 장구춤, 전주시립국악단 이창선씨의 대금창작곡과 김영언씨의 가야금창작곡, 풍물패 공연 등 전통문화예술인 20여명이 참여해 흥겨운 마당을 펼쳤다.

부거리 용기마을은 조선말 천주교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에게 의해 조성됐으나 용기의 쇠퇴로 흔적이 사라질 뻔했다.

하지만 25년전 안시성작가가 이곳에 자리잡고 맥을 이으면서 작업장과 용기마을은 지난 2008년 국가지정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전통용기제작 방법을 이어오고 있는 안 작가도 지난 2015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3호 용기장으로 지정됐다.

용기종기음악회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주관하고, 문화재청과 김제시에서 후원한 사업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탈리아대사관의 강가넬라부부는 "한국의 정통과 숨쉬는 용기의 과학을 소중하게 느끼는 시간이었고, 안시성작가 부부의 진솔한 모습이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 안시성 용기장은 "용기종기음악회는 사라져가는 용기의 소중함과 전통용기의 중요성 및 지역문화재의 소중함을 함께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면서 "과학이 담겨있는 용기를 건강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용기마을과 작업장 앞마당에서 가마 불 지피기와 전통국악이 함께 어우러진 '용기종기음악회'가 열렸다.

김제시 보건소, 세계 고혈압의 날 캠페인

김제시보건소는 최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나이 안 가리는 고혈압... 30~40대도 빨간불'을 주제로 김제 전통시장 및 축협 앞에서 고혈압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노인과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30~40대 시민을 주력 대상으로 혈압·혈당측정, 고혈압 건강 상

담을 실시했으며 고혈압 예방 책자를 배포하였다.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 심뇌혈관 예방관리 9대 수칙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며 홍보를 진행하였다.

김형희보건소장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고혈압의 날' 기념 고혈압 예방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고혈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방·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고혈압은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방법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다문화가족이 완주군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완주군 도움으로 결혼식 올렸어요"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 가족 대상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다문화가족이 완주군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영자)는 지난 18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가족실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복한 출발! 작은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결혼식 주인공은 고산면 주민 임모(49)씨와 필리핀 이주여성(39). 이들은 그동안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해 결혼을 미뤘었다.

이들의 소식을 듣고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생활가전, 이불, 생활용품 등을 축하선물로 전했다.

또한, 완주군여성합창단이 축하를 지원하고, 완주군은 장소 및 음향장비 등 행사의 전반을 지원하면서 소박하지만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행복한 결혼식을 치렀다. 5월의 신부가 된 이주여성은 "완주군에서 결혼식을 성심성의껏 준비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며 "결혼의 의미를 존중하는 결혼문화 확산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관내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최근 김제시 부랑면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는 민선7기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보육교직원의 자기전파력 교직원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되었으며, 김제시는 자체예산 2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교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강사의 강의 및 김제시장의 특강, 업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화합의 시간으로 구성하였고, 보육교직원 23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 대해 김제시어린이집연합회장(최현희)은 "늘 어려운 가운데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보육교직원의 소진된 몸과 마음에 대비와 같은 시간이 되었다. 김제시의 지원에 감사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보육교직원이 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는 보육교직원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육교직원분들의 행복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곳에서 더욱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더 많은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